

나눔터

2003 · 봄

제44호



- 03 • 여는글 | 새 정부에 바라는 성폭력 추방정책
- 06 • 여기는 상담실 I | 2002 상담현황
- 12 • 여기는 상담실 II | 열림터 캠프-마음의 보따리를 풀자 !!!
- 15 • 나눔터 자유기고 : 나에게 말하기, 타인에게 말걸기 | 솜털
- 16 • 나눔터 기획 I | 성폭력 근절과 갈등해결 따라잡기
- 20 • 나눔터 기획 II | 여성운동의 제도화
- 28 • 나눔터 좌담 | 상담현장에서의 여성주의
- 36 • 성문화 칼럼 | 그 남자의 잔인한 말버릇
| '그 남자의 잔인한 말버릇'에 하고 싶은 말들
| 폭력적 현실에서의 같은 말, 다른 의미
- 42 • 나눔터 학술 | 근대의 '자유연애결혼'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다른' 경험
- 48 • 퀴즈! 퀴즈!
- 50 • 성문화 읽기 | 가려진 삶과 이웃들에 대한 자각
- 52 • 당신을 만나는 기쁨 | 러시아 성폭력피해 생존자에 대한 지원 경험속에서
- 54 • 아낌없이 주는 나무

새 정부에 바라는 성폭력 추방정책

이미경(본 상담소 소장)

1. 여는 말

올해는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가 성폭력 추방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온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전국 107개의 성폭력상담소와 11개의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해왔다.

2001년에는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성폭력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또한 성폭력특별법도 2차에 걸쳐 개정이 됐고, 현재 3차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렇듯 성폭력 추방정책의 외양은 어느 정도 틀을 갖춰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폭력은 여성의 인권을 위협하는 범죄로 존재하고 있음이 일상적으로 보도되는 성폭력 사건 뉴스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담전화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한 해에 몇 건의 성폭력이 발생하는지, 고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통계조차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는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올해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가 앞으로 성폭력 추방정책을 추진해 가는데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성폭력 상담 현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2. 성폭력 추방정책의 과제

(1) 성폭력의 개념 및 범위 확대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다.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에서 공식적으로 성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성폭력특별법이 처음인데 이 법안에서는 성폭력을 따로 개념정의하지는 않은 채, 기존의 각 법안에서 해당하는 죄를 열거하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범죄행위들을 중심으로 구성

-
- 1) 이 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용어대신에 성폭력 피해생존자(survivo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성폭력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수 많은 피해여성들은 분노와 고통, 절망 속에서도 그 내면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용기와 힘을 갖고 있음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피해를 당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서 수사, 재판, 진료,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